

# 한국형 사회적 경제 모델과 칼 플라니

홍기빈 (KPIA 연구위원장)

## 1.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국가와 시장을 넘어

한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경험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 이제 반세기가 경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반세기 동안 외형적인 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성취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 등과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 성과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러한 외형적 성장을 위해 인간 및 자연과 사회는 철저히 그 성장의 논리에 종속되어야 할 투입물로만 여겨졌으며, 인간 발전과 사회 강화라는 목표는 무참하게 무시당할 때가 많았다. 공동체의 신뢰와 강화를 위해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발전과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교육과 여타 사회 활동들 또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크게 왜곡되어 버렸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금전적인 부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좇는 것에 길들여져 버렸지만, 인간적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질적인' 성장의 가치들은 뒤로 밀려버렸다.

이 반세기는 크게 보아 앞의 절반은 국가에 의해, 뒤의 절반은 시장에 의해 지배된 자본주의였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전자의 기간 동안 한국 자본주의는 개발 독재와 국가 동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자의 기간 동안에는 시장 독재와 자본에 의한 동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혹은 자본은 한국 사회에 굳게 뿌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비대해져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가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살던 작은 별이 너무 크게 자라난 바오밥 나무 뿌리 때문에 부수어질 위험에 처했던 것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 끈질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개발 독재를 일정하게 몰아내고 시민 사회를 창출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시장과 자본의 공세가 다시 시민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왜소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완전히 경제적 번영만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와 무관한 일체의 가치는 뒤로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두 과정, 즉 물질적 성장이라는 가치에 의해 인간 발전과 사회 강화라는 진정한 ‘부’가 부차화되는 과정과 국가 및 시장/자본이 사회를 붕괴에 가까울만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과정은 동전의 앞뒤를 이루는 것들이다. 사회란 다름아닌 인간의 삶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이요 장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발전이라는 목표 또한 사회 및 공동체가 강화되고 풍부해지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외형적 물질적 성장이라는 가치가 다른 것을 압도해 버리게 되면,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개발 독재 국가와 야수적 시장 자본주의라는 기능적 제도들 앞에 사회가 철저히 종속당하게 된다. 그 결과 물질적 외형적으로 성장과 풍요가 나타날수록 실제의 사회는 해체되어 붕괴의 지경에 이르고 개개인들의 삶은 내용적으로 빈곤해지고 인간 발전이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국가와 자본만이 한없이 비대해져만 간다.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편향적인 경제 성장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교정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자활 공동체나 협동조합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것들도 있고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처럼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것도 있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모두 이러한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만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생활의 필요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며, 특히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국가 이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설 수 없는 국가 및 공공 부문과 자본의 수익성이라는 원리를 넘어설 수 없는 시장 경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삶의 풍요와 인간 발전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점에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필요요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동을 중심 원리로 하여 조직되는 경제 생활의 장이자 경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큰 필요성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동시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제대로 사회에 착근되는 것의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한다. 앞에서 말한대로, 강고하게 뿌리박은 국가와 시장/자본의 힘에 의해 사회의 영역이 크게 위축되어 온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 및 시장/자본과 뚜렷이 구별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대로 씨앗을 품어 뿌리를 내리고 잎과 가지를 펼쳐가야 할지는 큰 숙제로 남는다.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기우(杞憂)만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미 이전 두 번의 정권의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온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한 재벌 그룹의 총수의 공언처럼 기업과 자본 측에서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입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물론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국가와 시장/자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 바람직한 공생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생' 관계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든든하게 독자의 사회라는 영역에서 착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독자적인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무엇이며 그 성격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제대로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의 혼란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영역에서 많은 활동가들과 사업체들의 상상력과 활동 범위의 확장과 방향 설정에서도 여러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보인다. 요컨대, 국가와 시장/자본이 비대해지며 사회를 위축시켜온 한국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그 고유의 정체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영역을 크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칼 폴라니: 사회적 경제의 사상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 사상가 칼 폴라니 (Karl Polanyi)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대해 갖는 중요한 함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폴라니의 방대한 저작과 사상의 내용을 여기에서 상술할 수 없으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모델 수립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점을 세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폴라니는 국가 및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사회의 실재 (the reality of society)'를 경제 이론 수립의 중심 개념으로 삼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가 일관되

게 추구했던 질문은, ‘인간의 자유와 도덕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경제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그 해답은 바로 시장 경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플라니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시장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인간, 자연, 화폐라는 사회 구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상품으로 만들 것을 시도하면서, 노동, 부동산 및 원자재, 수익 낳는 화폐 자본이라는 모습 이외에 그 세 가지 요소가 갖는 사회적 측면들은 철저히 부정하는 내용을 갖는다. 플라니는 이러한 ‘허구적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플라니 또한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도덕이 온전히 실현되는 삶이란 바로 그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국가와 시장과 같은 기능적 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간접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 즉 ‘사회적 관계’는 결코 사라질 수 없으며 항상 중심적인 현실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자연, 화폐를 ‘허구적 상품’으로 만들어 사회를 온통 시장 경제 안으로 흡수해버리려 드는 시장 자본주의의 시도는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이유에서 플라니는 이 ‘사회’를 국가와 동일시하여 후자로 흡수해버리려는 공산주의와 파시즘 등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대한다. 국가 이성과 그에 따른 권력의 확장이라는 물인격적인 합리성을 좇을 수밖에 없는 국가의 영역이 결코 ‘인간의 자유와 도덕’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장일 수가 없다. 결국 인간 세상의 유일한 실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서로의 자유와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맺어내는 사회적 관계, 즉 ‘사회의 실재’일 뿐이며, 국가와 시장은 그러한 사회의 실체 위에 얹혀져 있는 기능적 제도이자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존재론이었다.

둘째, 그는 이 ‘사회의 실재’가 인간의 살림살이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의 즉 실체적(substantive) 의미에서의 경제 활동을 능동적으로 조직해내고 또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사회적 경제의 작동 방식을 밝혀내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이론과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인간 사회의 경제를 해결하는 장치 및 제도는 오로지 국가와 시장 두 가지 밖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관점에서 있다고 할 것이다. 플라니의 후기 저작들은 모두 이러한 양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인간들이 서로 맺는 사회적 경제가 그 자체로 인간의 살림살이를 해결하는 경제 활동의 조직을 안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인간 사회의 노동 분업이 조직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모든 인간적 자연적 요소들을 시장 경제의 각종 범주와 형태 - 상품, 이자, 노동, 자본, ... - 로 변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경제의 필연성을 내세우지만, 플라니는 이를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실제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살림살이를 위해 벌이는 경제 활동은 시장 경제의 각종 범주와 형태를 띠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으며 또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수 천 년간 오히려 시장 경제 이외의 형태를 입고서 조직되어 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를 통해 유명해진 상호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가정 경제(householding) 등의 이른바 경제 통합 형태들은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 묻어 들어 있었던 노동 분업 조직 형태들이었다. 그는 이렇게 시장 경제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실재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가장 주목할만한 ‘사회적 경제’의 이론가라고 할 만하다.

셋째, 그는 이렇게 국가 및 시장/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의 독자성을 밝혀내고 그것이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자체 내에서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하여 그 세 영역 - 국가, 시장/자본, 사회적 경제 - 이 모두 함께 서로를 보완하면서 공존하는 거시적인 경제 시스템의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가 구상한 경제 시스템은 공산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 계획 혹은 시장 자본주의 중 하나의 원리로 획일적으로 조직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인간의 자유와 도덕이 충분히 실현되고 발현되는 경제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 계획, 공공 부문, 시장 자본주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그가 선호한 경제 시스템의 모습이였다. 따라서 그가 생각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 또한 GDP 계측이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화폐 가격 총량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여기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발전까지 포괄하는 그야말로 '다원적 경제 성장'의 이론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시장 경제에서의 자본 회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공공 부문과 사회적 경제에서의 성과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회계 방식의 고안 또한 고민한 바 있었다.

### 3. 신자유주의 시대의 칼 폴라니

1964년 칼 폴라니가 서거한 이후 그가 남긴 여러 저작들은 사회과학의 전 분야와 역사학에서 중요한 영향을 남기면서 그를 고전적인 사상가의 위치에 올려 놓았다. 특히 우리 논의의 맥락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프랑스와 캐나다를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의 저작이 중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활용되어왔다는 점이다. 우선 프랑스 파리 10대학의 사회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형성된 이른바 "모스 집단 (M.A.U.S.S group)"의 예이다. 공리주의와 기능주의에 찌든 사회과학을 벗어나는 것을 모토로 하여 1980년대에 시작된 이 집단은 마르셀 모스 (Marcel Mauss) 뿐만 아니라 칼 폴라니를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활발한 이론적 활동을 전개한 바 있었다. 이들은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프랑스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실천 활동과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이른바 "다른 경제 (alter economie)"의 이론으로 모아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모스 집단을 매개로 하여 칼 폴라니의 연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퀘벡 주의 경우에도 칼 폴라니의 이론과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몬트리올에 자리잡은 콘코디아 대학 (Concordia University)에는 칼 폴라니 정치경제학 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가 있으며, 그 소장인 같은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마르구에리트 멘델 (Marguerite Mendell) 교수는 폴라니의 이론에 기반하여 퀘벡 주 사회적 경제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의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에는 칼 폴라니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이전 몇 십년간 지구 전체를 횡행했던 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지구적 시장 자본주의가 가능하며 또 바람직하다는 시장 근본주의의 믿음이 근본적인 의문에 처하면서 시장과 사회와 국가가 모두 함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경제 조직의 성격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칼 폴라니의 여러 저작은 가장 중요한 영

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 4. 한국에서의 칼 폴라니 연구 현황과 향후 방향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칼 폴라니 연구는 아직 극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것이다. 비록 1980년대와 90년대에 그의 저작들이 번역된 적이 있었지만, 번역의 조약함 등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나마 오래 전에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간헐적으로 칼 폴라니를 다룬 연구물들이나 2차 저작이 나오기도 했으나, 칼 폴라니의 방대한 저작과 사상의 한 측면만을 다루거나 아주 개론적인 소개에 그치는 것이었고 그나마 별다른 반향을 얻지도 못하였다. 칼 폴라니의 저작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인 2009년 그의 주저라고 할 [거대한 전환]이 번역되어 나온 이후라 할 것이다. 이 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번역된 칼 폴라니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전 세계적 자본주의나 지역적 계획 경제나 외] 홍기빈 편역, 책세상

2009년: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홍기빈 역, 길

2014년: [다호메이와 노예 무역] 홍기빈 역, 길 (9월 출간 예정)

2014년: [인간의 살림살이] 이병천 역, 후마니타스 (근간)

2014년: [새로운 서양을 위하여] 홍기빈 역, 좋은책 (근간)

이 중 [전 세계적 자본주의나] 와 [새로운 서양을 위하여]는 그의 미출간 원고를 포함하여 그의 여러 편의 글을 편역한 선집으로서, 폴라니가 직접 출간한 핵심 저작들의 번역은 나머지 세 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직도 폴라니 저작의 소개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여라고 할 [초기 제국의 시과 교역 (Trade and Markets in Early Empires)]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콘코디아 대학에 자리잡은 칼 폴라니 정치경제 연구소에는 50 상자를 넘는 분량의 그의 저작들이 섞여서 소개를 기다리고 있다. 독일어권과 프랑스어 권에서는 이미 여러 권의 선집이 출간되어 있거니와, 특히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론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여러 권으로 구성된 폴라니 선집의 출간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출간 및 미출간을 포괄하여 그의 원고를 가려모으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헝가리어, 독일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저작들을 번역하는 작업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영어권 및 유럽 학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폴라니 논의의 논문과 2차 저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번역하는 작업 또한 국내에서의 폴라니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절실하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폴라니의 연구 자체를 소화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과 동시에, 그의 이론을 한국

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과 접목시키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적 경제 이론 - 소위 '실체 경제학' - 은 대단히 풍부하고 포괄적인 이론과 개념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한국의 구체적 실천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연결시켜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폴라니 연구자들과 사회적 경제 실천가 및 활동가들의 부단한 만남과 토론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작업이다.

덧붙여서, 앞에서 잠시 언급한 '다원적 성장 이론'이라는 거시적인 경제 모델의 준비 또한 한국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작업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쳐온 한국 경제는 지금 사회의 붕괴는 물론 경제 성장 그 자체마저도 정체에 처하고 있다. 소수 재벌 기업의 자본 축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지언정, 이것이 진정 사회적 경제가 꿈꾸는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 그리고 인간 행복의 질이라는 점에서의 '부'를 가져오는 성장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에 처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부족과 산업 경제의 침체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어두운 전조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재구성하자는 폴라니의 이론은, 시장과 기업 부문 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문과 사회 부문과 인간의 행복과 발전까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안적 성장 모델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것을 풀어내어 한국적 아시아적 맥락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